

중동 분쟁 여파 광주·전남 유가 폭등 우려

10일만에 23원 올라 22일 기준 ℓ 당 1635원…2주 연속 상승

이란-이스라엘 분쟁 확산…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전망도

중동 분쟁 여파 등으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 내 전 지역의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광주는 아직 까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유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2주 연속 상승세를 거듭하고, 전남 유 가 역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국내 유가는 앞서 지난 12일 이란-이스라엘 사 이에서 발생한 '중동분쟁'을 계기로 상승 전환한 뒤, 최근 분쟁 확대로 인해 세계 원유 물류의 핵심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 평균 유가는 이날 기준 ℓ당 1635원

으로 지난 12일(1612원) 대비 23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평균 유가는 지난 2월 1일부터 4달 연속 하락 추세였지만, 지난 12일 이스라엘의 이 란 선제 공습 이후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광주는 전국 17개 사·도 중 대구(1622원)과 울 산(1630원)에 이어 세 번째로 유가가 낮은 지역 이지만, 유가가 가장 높은 서울(1725원), 제주 (1724원) 등과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남 평균 유가는 ℓ당 1635원에서 1649원으로 14원 올랐다. 전남은 석유화학 등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지역 유가가 전국 평균 유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전국적인 유가 급등으로 인해 평균치 상 승폭이 높아지면서,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ℓ 당 1646원, 전남 1645원으로 '유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평 균 유가도 6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오피넷의 국내유가동향을 보면 6월 3주차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635.5원으로 전주 대비 7.8원 올랐고, 경유 판매가도 1주 전보다 7.6원 오 른 1498.2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는 지난 5월 1주차에 ℓ당 1639.8원으로 4.3원 오른 뒤 6월 2주차까지 6주 연속 하락을 지속했지만, 중동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상승전환한 것으로 분석된 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도 1506.6원에서

1490.6원으로 6주 연속 하락한 뒤 휘발유와 함께 상승전환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국내 유가는 당분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유가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최근 이란-이 스라엘 간 분쟁 확산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 곳을 공습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따른 국가 유가 폭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일 2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와 석유가 통과하는 세계 원유 물류의 중심지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시 현재 배럴 당 74~77달 러 수준인 국제 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 이상으로 뛴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30일까지

‘에이틀리에 화실’ 팝업

페인팅·미러 아트 등 체험

광주신세계는 “오는 30일까지 체험형 드로잉 등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에이틀리에 화실’ 팝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팝업이 ‘나만의 작은 화실’을 컨셉트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페인팅, 미러 아 트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 족단위 고객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팝업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되며, 최근 ‘아이와 가볼만 한 곳’이라는 키워드로 경주, 부산 등지에서 유명한 드로잉카페 에이틀리에에 화 실을 만나볼 수 있다. 에이틀리에 화실은 어린이 체험미של 뿐만 아니라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이름 을 알리며 키즈부터 성인까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팝업 행사장에서는 ‘베어브릭 DIY 키링 세트’, ‘캐릭터·원형 스마일 컨버asha’, ‘베어·버니브릭 캐 릿터 토이아트’, ‘빈티지 LP바이닐&하트 미러 아 트’, ‘명화 2월 도안 페인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베어·버니브릭 캐릭터 토이아트는 곰이나 토끼 모양의 피규어에 전용볼감을 이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본관 1층 에이틀리에 팝업 매장에서 어린이가 피규어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체험활동 시 앞치마, 팔토시, 모자 등 기본 준비물 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체험 시간은 90분으로 남 은 자리가 없으면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키즈

체험의 경우 보호자 동반 최대 1인까지 가능하며, 미취학·저학년 체험은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또 이번 팝업에서는 체험활동 후 SNS 팔로우를

하면 ‘쁘띠 물감’과 ‘봇세트’ 또는 ‘색연필 세트’를 증정하는 스페셜 이벤트도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기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공모

선정 기업 저리용자 등 각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5일 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 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 성과 50선은 중소기업 R& D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업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 &D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이다.

선정 유형별로는 ▲ 우수한 기술력으로 경제·기 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반도체·디 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 사 ▲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 업 5개사 등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전용 금리 대비 높은 추가 감면 혜택,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의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유명 전시회 및 학회 참가 지원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받고 IBK 기업은 행 일자리 포털(i-ONE JOB) 입점 지원, 후속 R &D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중기부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성과 50선 선정기업 현판도 제공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가속도 10개월만에 최대

19일간 4조 ↑ …이달 6조 늘듯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코스피 지수도 3000선을 넘어하면서 ‘영끌’ (영혼 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은행·금융당국의 경고와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 집행·신청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져 이미 사상 최대 영끌 광풍 이 불었던 작년 8~9월 직전 수준에 이르렀다.

이 추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 하 조치마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 원)보다 3조9937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2102억원씩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해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달 말까지 6조3000억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달 일평균 증가액과 전체 월 예상 증가 폭은 작년 7월(하루 2312억원·월 7조1660억원) 에 근접한 상태다.

지표 기준으로 현재 상황이 지난해 8월 사상 최 대 영끌 열풍이 불기 직전과 비슷하다는 게 은행권 의 분석이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596조6471억원으 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9일 사이 2조9855억원 늘었다.

월말까지 4조7000억원 이상 불어 5월 증가 폭 (+4조231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도 103조3145억원에서 104조4027억 원으로 1조882억원 증가했다. 이미 하루 평균 증가 액(573억원)이 5월(265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월말까지 1조7755억원 불 어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7월(+1조8637억 원) 이후 무려 약 4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급증에는 주택 거래자금뿐 아 니라 증시 투자자금 수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일 부 은행은 이미 수요 억제 조치에 들어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이나 주식 투자에서 기 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대출 금리를 웃돌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어떤 조치로도 잠재 적 영끌 수요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등 포도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광주교통공사와 농협광주본부, 롯데아울렛 광주수안점 임직원들이 최근 광주시 북구 평촌마을 일대 포 도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대형마트들 이윤 줄여 계란값 안 올린다

납품가 올랐지만 8000원 이하 유지

대형마트들이 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계란 값 을 소비자에게 인상 이전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 다. 장바구니 대표 물가 품목인 계란의 납품가가 10~20% 올랐지만, 이윤을 줄이면서 소비자 가격 을 8000원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유통업체와 축산물품점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 (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특란 한 판 값을 2년 전부터 유지해 온 7990원으로 동결해 8000원을 넘지 않도록 제 한하고 있다. 이마트 역시 납품가가 10% 이상 올 랐으나 소비자 가격 인상 폭을 누르고 있다.

이마트의 특란 한 판 가격은 작년 6월 7580원에 서 현재 7980원으로 400원(5.3%) 올랐다.

롯데마트의 대란 한 판 가격은 작년 6월 7490원 에서 현재 7990원으로 500원(6.7%) 인상됐다. 롯데마트는 대란을 중심으로 계란을 판매한다.

대형마트들은 일차별 계란 수급량이 작년의 80 ~90% 수준으로 판매용 물량이 모자라지 않은 상 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들은 또 일반 판매용 계란 상품에 대해서 는 현재까지 구매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이 휴가철에 소비가 줄고 산란계 생산 기간을 평균 84주령에서 87주령으로 늘리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3000 뚫은 코스피

상승·하락 베팅 동반 증가

리스크 많아 투자 신중해야

코스피가 2022년 1월 이후 3년 반 만에 3000대에 복귀하면서, 상승에 베팅하는 ‘빚투’ (빚내서 투자) 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 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 3일 (3,010.77) 이후 처음이다.

마감가로는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3,000선 위로 올 라선 것은 새 정부 정책 기대감·외국인 복귀·관세 불확실성 완화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진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작년 말 비상계입 사태로 촉발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박스권 탈출의 원 동력이 됐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우려가 다소 낮아진 가운데 앞서 9개월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도 5월 말부터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선된 투자심리가 지수를 밀어올렸다.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1조5614억원으로 지난달 말(910조4483억원) 대비 10.65% 증가했다.

9조원대 초반이었던 작년 연말과 비교하면 28%가량 늘어난 규모다.

신용거래용자는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통상 추가 상승이 예상될 때 잔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오랜 약세장에서 탈 출해 코스피 3000을 바라보자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 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증권과 은행의 신용 잔고 증가율이 각각 98.24%, 58.68%를 기록하는 등 금융권 종목 에 대한 ‘빚투’가 큰 폭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증시 부양 및 상법 개정에 대 한 기대감에 해당 종목들이 급등하며 추가 상승 기 대감이 반영됐다. 실제로 증권업종지수는 같은 기 간 15.89% 상승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세계 성장시장 中에 밀려

한국 점유율 갈수록 하락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성장업종 수출시장 활용현황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수출산업이 지속 가능 한 성장 구조를 갖췄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장 규모 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품목(이하 성 장시장)에서 한국 수출이 시장 속도에 발맞춰 증 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전 품목 중에서 2015~2022년 사이 수출시장 규모의 성장 속도를 기준으로 성장 속도가 빠른 200개 품목을 성장시 장이라고 정의했다.

분석 결과 200개 성장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 는 시장점유율은 2015년 5.6%에서 2022년 5.0% 로 하락했다.

200개 성장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총액은 지난 2015년 1282억달러에서 2022년 2398억달러로 1.9배 증가했지만 성장시장 전체의 확대 속도 (2.1배)를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경 쟁하는 중국의 성장시장 점유율은 2015년 21.7% 에서 2022년 31.2%까지 확대됐다.

중국은 같은 기간 200개 성장시장 수출액이 2.2 배(2015년 4598억달러→2022년 1조100억달러)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 117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7	15	16	19	43
2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4,576,672,000		6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1,022,294		75
3	5개 숫자일치		1,471,126		3,111
4	4개 숫자일치		50,000		157,438
5	3개 숫자일치		5,000		2,644,128